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말 교실¹⁾

- 국어과 학습자 활동 중심 교수·학습 사례 -

송 창 선*

I. 머리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다. 더 이상 고착된 단순한 지식만으로 안주할 수 있는 시대는 가고, 창의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 기반, 정보화 기반 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중점은 단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획일적인 지식의 주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살려 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 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대 사회의 총아로 떠오른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결합되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II.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 사례

1. 연구 동기

이런 환경에서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사

1) 2001 전국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연합회 주최 <학습자활동중심 교육활동 우수사례 workshop> 발표 원고임

를 키우고자 함에 있어서 독서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된다. 독서활동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건전한 비판 능력을 배우며 나아가 지적 능력과 인성을 함께 닦아나가는 통합적인 활동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독서를 통해 인성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름으로써 문화·환경적인 제한을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가. 폭넓은 독서를 통한 통합적 이해력 및 사고력을 배양한다.

나. 독서록 발표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건전한 심성을 내면화한다.

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제시하여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독서생활의 습관화를 도모한다.

3. 이론적 배경

가.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 교육

일반적인 면에서 독서 지도의 필요성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폭넓은 경험을 체득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 중, 독서에 의한 간접 경험을 들 수 있다. 현대와 같이 문화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학습하기란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독서에 의한 간접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둘째, 도서의 올바른 선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적인 독서에 의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자기의 생활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책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힘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느냐가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인간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커진다.

2) 새교실 편집부(1982), 「독서교육」, 새한신문사, pp.9-11 참고

셋째, 독서 이해력과 감상력의 증진으로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좋은 책과 필요에 부응하는 도서가 선정되었다 해도 이를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서 이해력과 감상력이 부족하면 독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상업주의에 대한 감식력이 약하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바르게 가져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넷째, 독서 결과를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도 그것을 자신의 교양과 일상 생활에 응용하지 못한다면 독서의 의의는 없어진다. 독서를 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독서 후에 감상을 기록하고 책에서 감명 받은 것을 실천해 보는 등,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화가 독서 지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독서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학생의 독서 생활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건전한 독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흥미 위주의 책에만 매달리거나, 반대로 난해한 독서만 하기도 하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각각 적당한 독서를 권장하여 자기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독서 생활을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제의 사전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이다.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비행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 성향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의도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유익한 책을 읽힘으로써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나아가 자기 지도의 계기를 얻게 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독서는 독서 자료를 매체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사회 생활에 적응력을 기르며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는 활동이다. 건전하고 창조적인 독서 자료들은 그 때까지 문화의 창조적 산물이며 지식의 축적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자와 시대와 사회와의 만남을 이루고 지식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지식의 산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성숙한 자아 형성을 돕고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길을 더불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협력적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 토론

독서 토론의 원리는 ① 주제 중심의 원리, ② 주장의 명확성, ③ 근거의 타

당성, ④ 논리적 비판의 원리, ⑤ 대안 제시의 원리, ⑥ 협력적 사고의 원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글쓰는 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활동에서 상반된 의견을 잘 들고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훈련이 중요하다. 메모는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각각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되, 근거가 되는 사례나 명제를 적어 두면 편리하다. 독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 중에 찾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쓸 때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서 지도의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산업화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개성과 다양성의 사회라고도 한다. 사실 우리가 독서에 대해 지도하려는 학생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관심과 흥미, 취미, 지적 수준이나 태도에 있어서 각각양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독서 지도는 학생들 저마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도록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독서 지도에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독서 토론 캠프, 모방 작품 쓰기, 독서 기록장 쓰기 등을 소개한다.

가. 독서 토론 캠프

독서 토론 캠프는 학생들이 서로 더욱 가깝게 어울리며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뚜렷한 여가 선용의 방법도 없고 문화 공간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야영 자체만으로도 큰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독서 토론에 접목시키려 하였다.

또한 시간 제약을 다소나마 덜고 자신이 읽은 책이나 영화,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서사적 장르, 또는 희곡적 장르에 대한 감상 훈

련을 더할 수 있었다. 동일한 작품이나, 또는 비슷한 주제의 작품에 대한 공감이나 비판 등의 서로 다른 자신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체험들과 방법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1) 독서 토론 캠프의 절차

- 가) 모둠 만들기 : 각조 4-5명씩 2개조로 편성
- 나) 모둠 이름짓기 : ‘금잔화’
- 다) 범위선정 : 조별로 토론할 작품을 행사 전에 선정
- 라) 진행방법 소개

2) 독서 토론 캠프 일정표 및 토론 과정안

시 간	일 정	내 용
8/29 15:00-16:00	설영	모진이 바닷가
16:00-17:00	강의	좋은 책 읽기의 중요성
17:00-18:00	토론 준비	토론의 주제 및 범위 정하기
18:00-19:30	저녁식사	식사 및 휴식
19:30-21:30	독서(영상) 토론	조정인 ‘가시 고기’ 드라마 ‘허준’
21:30-	간식 및 취침	
8/30 6:00	기상	
7:00-8:00	아침 식사	
8:00-10:00	산상 백일장	제재 : 배경 자체가 산과 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 모습과 느낌들을 글로써 담아 보도록 한다.
10시	철 영	

일시	2000. 8. 29	대상	독서토론반	장소	
목표	(1) 제재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익한 의견들을 끌어낼 수 있다. (2) 제재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음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안다.				
단계	토론 내용				유의점
도입	토론의 의의 : 토론은 수렴적 사고 과정이며, 협력적 사고로서 보다 바람직한 견해나 가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임				
전개	◎ 조정인의 '가시 고기'에 대하여 (1) 아버지의 죽음을 숨긴 행동은 옳은가? (2) 어머니와 아버지의 별거 이유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 보자. (3) 작품의 끝 부분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더 전개해 보자.				※ 대화 과정에서 쟁점이 나타나면 이를 정리하여 수용한다.
	◎ 드라마 '허준'에 대한 감상 교환하기 (1) '허준'을 통해 알게 된 '의술'과 '인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허준은 서자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이 성장기는 이후의 허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3) 허준은 '반상의 결혼' 때문에 옥고를 치른다.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4) 허준을 대하는 여진의 심정 변화를 살펴보자. (5) 허준의 아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6) 왕족의 병을 다스리지 못한 의관을 처형하는 제도는 필요악인가? (줄임)				※ 심정이 변한 곳이 있다면 그 계기를 살펴 보자.
정리					

나. 모방 작품 쓰기

소설 읽기에서 받은 감동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아울러 창작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작품의 결말 이후 부분을 상상하기'와 '모방 작품 쓰기'를 시도하였다. 중학 국어 1학년 과정에 나오는 오영수의 '요람기'와 황순원의 '소나기', 3학년 과정에 나오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등은 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소설 창작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들이다.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시고기'와 '소나기',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작품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품을 모방하거나 일부 내용을 자신이 느낀 대로 상상해 보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1학년 학생들은 '요람기'를 배우고 나서 모방 소설 쓰기를 해 보았다. 다른 작품과 달리 손쉽게 소재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므로, '요람기'의 순수한 동심과 구수한 향토성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입장에서 느껴 볼 수 있었다.

(예) 모방 작품 쓰기

원 작	오영수 '요람기'	1학년 1반	김 왕 준
나 의 요 램 기			
<p>(줄임) 전에 여름방학 때였다. 그 때 곡성에 있는 큰 덕에 간 적이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인 왕일리와 광일리가</p> <p>“엄마, 요 앞에 냇가에서 떡감고 올게!”</p> <p>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좀 갔다와도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에 따라갔다. 그런데 왕일리와 광일리가 자꾸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것이었다. 냇가에 도착하자마자</p> <p>“이야! 광일야, 뭐 혀! 얼른 왕준이형 빠뜨리장께로!”</p> <p>“좋아부렀어!”</p> <p>하며 협공을 하는 것이었다. ‘퐁당!’ 빠지고 말았다. 예구 에……, 이왕 빠졌으니 신나게 놀자는 생각에, “네 이놈들!” 하면서 놀았다. 재미가 한창 무리익을 즈음 용일이형이 와서 같이 놀았다. 용일이형은,</p> <p>“나 옷 젖으면 혼낭께, 튜브 위에 서 있을게.”</p> <p>하는 것이었다. 더 빠뜨리고 싶어져서 기회를 보다가 확 밀어버렸다. 또 광일리가 튜브를 배 삼아 엉덩이를 구멍에 넣고 돌아다니는데 보고만 있을쏘냐? 잠수, 손을 모으고, 조준. 발사! 얼마나 했었는지 온종일 아프다고 했을 정도다. (줄임)</p>			

다. 독서 기록장 쓰기

독서 지도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① 독서 기록장 갖추기, ② 매일 방과 후 1시간 이상 책 읽기, ③ 분기별로 5편 이상의 독서감상록 기록하기 등을 방침으로 하여 추진했다.

학년별로 누가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썼던 독후감을 다시 써서 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고, 늘어나는 독후감을 봄으로써 성취감을 갖게 할 수 있었다. 우수한 독서 기록장을 돌려보면서 자신이 쓴 독후감과 다른 학생이 쓴 독후감을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나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 교사로서는 학생들의 독서 취향을 분석하고, 학생 개개인의 독후감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냄으로써 독후감 쓰기에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1) 독후감 쓰기의 단계

오랫동안 독후감을 써 왔으면서도 여전히 독후감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외로 많다. 이런 학생들은 독후감 쓰기를 싫어하고 자연히 독서에서도 흥미를 잃어 가게 마련이다. 독서의 효율을 높이자고 한 독후감 쓰기 지도가 오히려 독서 의욕을 저하시키는 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으

로서 이원희(1999)는 단계별 독후감 쓰기 지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

	단 계 별	방 법	구 체 적 내 용
1	현실 진단	자신을 객관화하기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독후감을 써 왔는지 확인
2	개념 정립	인식 바꾸기	상식 속에 있는 독후감과 현실 속에 있는 독후감을 견주어보기
3	감 잡기	느낌 얻기	앞에서 설명한 개념에 대해 교사가 풍부하게 설명하기
4	사례 보기	스스로 눈뜨기	성공한 독후감들을 보면서 독후감에 대한 구체적인 실감 얻기
5	공동 학습	서로에게 배우기	친구들이 쓰는 독후감을 보면서 서로 배워가기

2) 독후감 쓰기 지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후감 쓰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자신의 방법을 골라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년초에 독후감 서식을 나눠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였다. 우리 학교에서 활용한 방식은 (1) 일반 독후감, (2) 책 속의 주인공(인물)에게 편지 쓰기, (3) 책 토론 글쓰기, (4) 독서 일기 및 메모 등이다.

예)독서감상문

3학년 1반 이름 이원희

책 이름	파우스트	읽은 날짜	2000. 11. 6
지은이	괴테	출판사	삼중당

“신의 은총”

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악마의 무지한 장난으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까지 그 동안 그 사람이 겪었던 괴로움, 절망감. 이것을 지금부터 여기에 옮겨 적으려니까 눈물이 핑 돈다. 무엇 때문일까? 적에게도 목숨과 사람의 희생을 바친 한 여인을 위한 것일까? 아님 파우스트를 지옥으로 데려 가려 했던 악마 때문일까?

이 책은 나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였다. 자기 오빠를 죽인 죄는 영원히 갚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죄값은 꼭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레이트 헨은 파우스트를 용서해 주었다. 그것만은 아니었다. 파우스트가 악마의 패거리라는 사실이 황제에게 알려졌을 때 파우스트를 구원해 주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뿐이었다.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화를 내고 싸운 애가 있으면 그 애를 시키하고 미워하고 항상 나만 생각하는 소위 이기주의의 소유자였다. 나도 그레이트 헨처럼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가슴 속 깊이 새겨 나가겠다. 이 일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줄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 왔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삶에 대한 이 갈등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라면 뭘 택했을까? 젊음? 아님...명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파우스트였다면 명예를 택할 것이다. 홀려간 세월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지만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젊음을 다시 찾아 불행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비참해질 것이고 불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한탄에 빠져 결국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명예를 택하게 된다면 명성 높은 학자로서의 뿌듯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그레이트 헨이 파우스트를 대신하여 사형대에 올라섰을 때,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줄임)

3) 이원희, '효율적인 독서지도방안',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교사 밤샘 워크숍」, 탐라교육원, 1999, p25-26

3) 책 속의 주인공(인물)에게 편지 쓰기

편지글의 일반적인 형식을 권장하지만, 모든 형식적 요소들을 다 갖추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상대방 문안'이나 '계절 인사', '자기 안부' 등은 가볍게 여겨도 좋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독자의 감상을 자연스럽게 풀어 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편지의 형식을 빌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지의 특성은, 상대방을 직접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물론 어른께 대하여 쓰는 경우에는 예의를 갖추어 줄도 알아야 하고, 친한 친구 사이라면 친근한 정감이나 우정을 담을 수도 있어야 한다.

상투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성의 없이 보이므로 좋은 글이라 할 수 없다. 직접 책 속의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과 만나는 심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생활과 인물의 생활을 비교해 보는 것도 독서를 통한 자아 성찰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는 비교적 편안한 방식으로 솔직한 감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어나가는 실속 없는 독서 편지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했다.

간혹, '책 속에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를 하면서, 같은 편지 글의 형식으로 친구에게 감상을 주고받는 투로 써 내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호칭은 작품 속의 주인공의 상황에 따라 호칭을 정하되 자유롭게 한다. 인사와 자기 소개할 때의 내용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도록 적절히 한다. 학년 반, 사는 동네를 형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지양한다.

본문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행동과 공감하거나 다른 의견을 쓴다. 자신의 의견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간단히 밝히도록 한다.

맺음말의 내용은 주인공에 대한 축복이나 격려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짐을 써 보도록 권장한다. 서명에서는 독자 자신이 주인공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짧막하게 써 주는 것도 좋다.

예)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받는 사람	책 이름 : '아버지'	주인공 이름: 아저씨
보내는 사람	(3)학년 (1)반 ()번	학생 이름 : 문혜림

아픔을 딛고 일어난 아저씨께(에게, 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흰 눈이 내리던 어제에 아저씨를 만나 편지를 써야지 했더니만 어느덧 노오란 하늘을 맞이하게 된 오늘에야 편지를 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예쁜 소녀 혜림이라고 합니다. 파란 바다의 물결과 붉은 저녁 노을의 모습에서 태극 물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상징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아저씨께 마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5월달! 푸르름이 더해 가는 가정의 달 5월이기에 더욱이나 마음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지금 제 옆에서 가정의 따사로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의 미소를 청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도움을 청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도와주실거죠? 참! 책에서의 아저씨의 햇살같은 성품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정상인이 아닌 아저씨의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더 따스하고 밝은 미소를 띤 사진에서 아저씨에 대해 더욱 호감이 갔아봐요. 또,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에……. 저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긴(?) 소설도 준비해 두고 있구요. 하지만 아저씨... 저는요,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 싸늘한 날씨처럼 제 마음 또한 싸늘했거든요? 저에게는 장애를 지니며 따가운 사회의 시선을 받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촌 언니가 있어요. 저 역시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 다가가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버스를 탈 때에도 1m 떨어진 곳에 있었구요. 눈이 잘 안보인 언니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대한 큰 의식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손을 잡지 않았어요. 허나 아저씨께서 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주신 덕분인지 지금은 언니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전화도 자주하고... 많이 착해졌죠?

요즘 많은 일들로 인해 힘들거든요? 왜냐면.... 3학년이다 보니깐요. 사실은요 피아노도 하고 싶는데 여건상... 그럴 때마다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귓가에 스쳐지나가곤 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주인공이다.' 정말이지 이 넓고 복잡한 사회에서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교실의 분위기는 분주해요. 혹시 이런 것이 세상의 주인공인가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요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 날씨를 맞볼수 있구요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아저씨를 알 수 있으니.....제가 아저씨께 사랑을 전해주려구 했는데 오히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주 아저씨께 편지도 하구요 아저씨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제는 학생 아니 사람으로써 해서는 안될 생각들도 안할게요. 왜냐하면 혜림이는 세상의 주인공이니까요. 아저씨 제가요 예쁜 마음을 보낼 테니까요.

(줄임)

4) 책 내용 토론 글쓰기

우리의 사고력 가운데 암기력은 가장 단순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적용 능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토론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판적 사고는 이 방식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의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비판을 활용한다면 토의·토론 수업의 질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SQ3R - 1920년대 '효과적인 학습방법(effective study)'이란 제목으로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학 프랜시스 로빈슨(Francis Robinson)이 개발한 방식을 응용하였다. SQ3R이란 <내용 훑어보기(Survey)-훑어본 내용 질문하기(Question)-꼼꼼히 읽기(Read)-읽은 내용 되새기기(Recite)-읽은 내용 검토하기(Review)>의 5단계로 진행되는 책읽기이다.⁴⁾

책 속의 화제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자기 나름의 시각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시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비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먼저 다양한 시각을 접해 보면서 자신의 시각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주의 기울여야 한다.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관심이 필요했던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어떻게 학생들의 입을 열어 놓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교사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둘째는, 공평한 규칙의 적용과 전개이고, 셋째는, 어떻게 대화의 흐름을 맺고 끝느냐 하는 것이었다. 특히나 직과 토론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서로의 비판을 어디에서 매듭짓고, 또, 새로운 발제(拔題)를 언제 투입하느냐가 토론 성패의 관건(關鍵)이었다. 비교적 어려운 주제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기도 했다.

4) 안성수, "21세기 문화대국을 꿈꾸며", 「읽으면 행복합니다」, 제주도교육청, 1999, p.17 참조

(1) 책 토론 지도안

책 토론 지도안		지도 일시	2000.7.12
주 제	'홍길동전'에 대한 토론		
목 표	'홍길동전'의 주요 내용을 비판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 수 있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홍 길 동 전'의 내 용 파 악 하 기		
전 개	<p>1. 길동의 탐관오리의 숙청에 대하여</p> <p>(찬성) 광해군조의 시절의 관리가 패역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탐관오리의 잘못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서열인 길동이나 당시의 서민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길동의 탐관오리의 숙청은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p> <p>(반대) 아무리 광해군조의 기강이 문란해 있었다 하더라도 밑으로부터의 힘에 의한 개혁은 많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먼저 기득권 세력과 피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하여 조직적으로 열세에 있는 서민층은 적잖은 희생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p> <p>2. 적서 차별에 대하여</p> <p>(찬성) 적서 차별 제도는 인간의 평등권에는 어긋난다. 그러나 그 당시 양반들은 지위나 경제력 등에 따라 첩을 둘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보면, 그들 간에 위계 질서를 세워 예상되는 혼란을 다스리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일처를 권장하는 기능도 예상된다.</p> <p>(반대) 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적서차별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p>		<p>※ 학생들이 새로운 쟁점을 찾았을 때는 그 쟁점에 대하여서도 토론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p>
정 리	※학생들의 토론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정리하도록 한다.		

(2) 독서 토론을 위한 발제문(사례)

(가) '심청전'의 발제문(예시)

심청은, 오직 한 말로 효(孝)라고 집약될 수 있는 이념적 요청 때문에 투지를 가지고 이념적 요청의 육화(肉化)로서 행동했다. …… 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컨대 효를 행해야 하는 지상(至上)의 명제 때문이었다. 이 지상의 명제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이 신성하다고 믿었

기에 죽어야 하는 것도 ‘또한 천명’이라고 했고, 장승상 부인이 공양미 삼백 석을 준다 해도 ‘어찌 남의 무명색한 재물을 바라오며’라고 하며 거절했다. 효를 행해야 한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어긋나는 삶의 현실을 도리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심청은 믿었다. …… 심청은 효를 하기 위해 앞 못 보는 부친을 속이고, 부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부친을 말할 수 없이 큰 불행에 빠트려야만 했다. 효를 절대적인 것으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효마저 부정해야만 할 정도로 심청의 희생이 이율배반적 성격을 지녀야 했다.⁵⁾

(나) ‘토끼전’의 발제문(예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토끼가 주인공인가, 자라가 주인공인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제목도 ‘토끼전’, ‘별주부전’ 또는, 판소리에서는 ‘수궁가’라고도 한다. (줄임) 토끼가 주인공이라면 그 작품에서는 힘없는 가난한 서민들을 대표하는 토끼가 권력자인 용왕을 한바탕 골려 주고 ‘시련을 슬기로운으로 극복하는 지혜’가 주제일 것이고, 만약에 자라가 주인공이라면 봉건적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임금(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자라와 영악하고 뛰어난 기지로 위험을 이겨내는 토끼의 행위를 대비시키면서 나아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⁶⁾

라. 제재별 감상문 쓰기

주제별로 책을 선정하여 읽었을 경우, 서로 다른 두 책의 주인공들의 삶이 대조적이거나 비슷할 수가 있다. 또는 동일한 소재에 대한 관점이 다른 글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작가의 관점이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두 작품의 내용을 하나의 글 속에 모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쟁점을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이끌어내며, 또 그 견해에 대한 근거도 들어서 기술하도록 했다.

5)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계명논총 제7집, 계명대학, 1971, p.5참조

6) 제주도교육연구원, ‘중학교 국어과영역별학습자료’, 1997, p.362 참조

*'단종애사'와 '대수양'?)

1941년 <조광>에 연재되었던 '대수양'은, 같은 소재를 취한 이광수의 '단종애사(1929)'와 대조를 이룬다. '단종애사'에서는 단종의 때이른 양위와 사육신의 죽음, 그리고 세조의 집권을 선악으로 바라보았다. 단종은 선하고 연약한 인물로, 세조는 악하고 강한 인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대수양'에서는 수양대군을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광수가 통설을 충실히 따르며 역사를 재구성했다면, 김동인은 활발한 기상에 요동경영을 생각하는 용대함을 지닌 수양대군을 그려냈다.

'단종애사'에서는 단종을 '비극의 소년 왕'으로, 사육신을 '만고의 충신'으로, 세조를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악한'으로 묘사했다. 앞서 말했듯이 역사적 통설과 소박한 민담적 상상력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대수양'에서는 '수양'은 어린 조카를 영의정으로 보좌하고 왕위에 대한 욕심을 품은 적이 없다. 다만 그의 주변에 있는 야심가들이 어린 단종을 충동해 양위를 획책했을 뿐이다. 그는 악을 행하는 바 없이 바라던 것을 손에 넣는다. 역신인 황보인, 김종서 등을 충의 이름으로 죽여 정치적 실세가 되고, 단종의 자발적 양위에 의해 야망을 이룰 발판을 만든다.

마) 독서 논술

교내 국어경시대회를 독서 논술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국어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독서 논술이 비교적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서 논술은 먼저 책을 읽고서 자신의 창의적인 주장을 논거에 의해서 주장하게 되므로, 예리한 통찰력과 표현 및 글의 구성 능력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항 예시>

- 작품을 읽고 시대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관련단원 : 문학의 세계와 삶의 세계)
- 작중인물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정리해 보자.
(관련단원 :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홍길동전', '토끼전', '심청전')
- 시 속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에 대하여 논술해 보자.
(관련단원 : '시의 화자')

<평가 기준>

- 주장은 참신하고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가.
-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독서 논술 예시>

교내 독서논술대회

제 3년 1반 번 이름 : 이 선 미

아래에서 두 문항을 선택하여 각각 천 자 내외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상록수’에 나타난 일제 강점기의 현실

심훈은 3.1운동에 참가하여 4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었고, 상해지상대학에 3년간 수학한 후 여러 신문사와 경성 방송국의 기자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여러 작품 중에서도 ‘상록수’는 농촌계몽운동을 내용으로 한 계몽적 소설이다.

이 글에서는 작품 속에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 당시 농촌의 생활, 교육활동, 그리고 주인공인 영신과 동혁의 비극적인 사랑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그 당시 농촌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작가는 이러한 농촌의 모습을 동혁이 살고 있는 ‘한곡리’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작품 속에서 ‘한곡리’에서 심한 가뭄이 찾아와 농민들에게 커다란 걱정을 안겨주었다. 걱정하는 농민들을 위해 동혁은 동네 청년들과 함께 공동 답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처럼 작가는 농촌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하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힘을 모아 그 해결책을 찾았다.

둘째, 농촌의 교육활동은 영신이 활동하는 ‘청석골’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 당시 일제하의 무너진 우리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문명의 혜택이 없는 아이들에게 영신은 낡은 예배당을 빌어 아이들을 가르친다. 배움에 굶주린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일본 주재소의 간섭으로 인원을 줄이게 된다. 영신은 마음 아파하며 아이들의 1/3을 밖으로 내쫓는다. 밖으로 쫓겨난 아이들 역시 원망의 눈초리로 영신을 바라보지만 창문 너머로 열심히 따라한다. 이에 영신 역시 칠판을 창가로 향하게 하여 쫓겨난 아이들도 함께 가르친다. 이런 상황 속에 작가는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셋째, 작품 속 두 주인공인 영신과 동혁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난다. 영신과 동혁은 농촌계몽운동의 동지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작은 사랑을 키워 갔었다. 하지만 영신은 일본 유학 도중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이런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농촌을 위한 희생으로 더 감동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농민운동을 주체화 하였다.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물들의 활동이 더욱 눈에 띄는 작품은 지식인의 농민의 삶 속에 스스로 동참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워 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계몽운동의 실천과 성과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농민운동의 실천이 민족운동의 맥락과 같은 궤도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Ⅲ. NIE

1. 자기 소개 광고

(관련 단원 : 생활국어1-1, 1. 생각과 표현)

국어 시간이 되자 학생들의 움직임과 수렁거림이 교실을 매웠다. 학생들은 모둠 활동이 가능하도록 책상을 맞대어 모으고 모둠별로 둘러앉았다. 그 한가운데에는 2절 크기의 캔트지가 놓여 있고, 학생들은 각각 자신이 활용할 공간에 눈을 맞추었다. 이어서, 넓은 신문지를 책상 가득 펼쳐 놓고 원하는 문안을 만들어 내느라 바쁘다. 먼저 자신을 보여 줄-과거도 좋고 현재나 미래상도 좋다-화상(캐릭터, 화보 등)을 찾는다. 다음은 자기 이름을 넣어 자신의 특성과 소망을 보여 줄 표어를 구상한 다음, 그 문구를 신문에서 찾아내어 오려 판에 붙인다.

자신의 광고를 만들면서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신문에 소개된 광고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된다. 활동은 조별로 이루어지며 구성원과 협의하여 화면을 구성해야 하므로 협동심도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으면서 모둠 학생이 찾는 내용이 눈에 띄었을 때는 서로 건네주면서 서로에 대한 정을 더하기도 한다. '자기 소개 광고'는 '자기 이해-내용 선정-재료 모으기-표현 방법 모색-표현하기-독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기' 등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2. 신문 만들기

(관련 단원 : 2-1 9.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

가. 신문 제작 학습의 의의

신문은 학교와 향토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의 보도·비판을 신속하게, 또 널리 전해 주는 정기 간행물이다. 따라서 신문 제작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학교와 향토 사회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건전한 대안 모색까지 생각해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신문의 특성을 보다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기사문의 형식과 적용, 해설문의 기능과 표현

을 체득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작된 신문에 대한 상호 평가를 통해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실제 체험도 유익하다.

나. 부서의 조직과 편집 방향 설정

학급 신문을 만들 경우에는 이미 조직된 학급회 조직을 활용하여 부서 특성에 맞는 기사를 모은다. 향토 신문인 경우에는 애향단별로 기사를 모으되 사회·경제면, 학습·학생 생활면, 문화·체육면, 환경·과학면 등으로 편집한다. 단, 특집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집의 주제 선정과 세부 역할 분담을 위해서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용지 규격은 A3를 권장하고 반으로 접어 다단 편집하도록 권장한다. 신문을 만들기 전에 학교의 소식지와 일반 신문을 열람하면서 신문 편집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편집 방향을 모색해 본다. 사진을 스캔 받는 일이나 팩스 및 복사의 처리, 기사 내용의 공정화에 대해서 교사는 능동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신문 만들기의 절차는 <취재-정리-편집-인쇄>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 신문, 학급 신문, 향토 신문 등을 만들어 본다. 학급 신문과 향토 신문을 만들 때에는 역할에 따라 부서 모듬을 정하여 기사를 모으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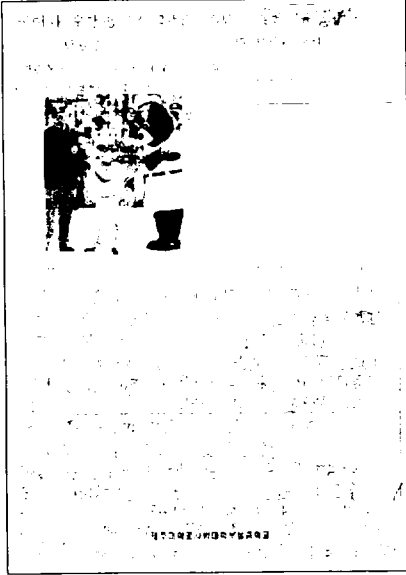
3. 신문으로 묘사와 서사 익히기

가.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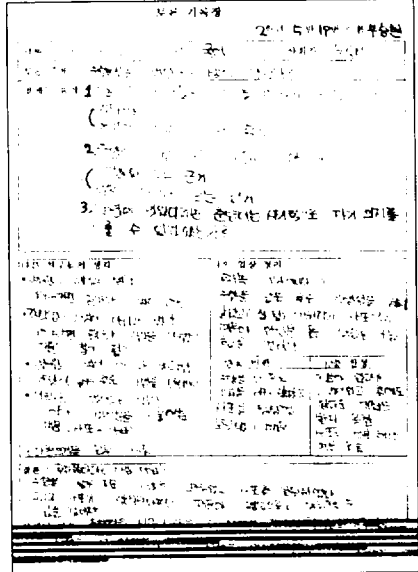
(관련 단원 2-1, 13. 묘사와 서사)

신문 기사 중에서 자신이 인상적으로 본 화보, 사진, 일러스트 등을 찾아서 스크랩한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그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묘사 전략을 세운다. 묘사 전략은 '제재 선정—정황 분석—묘사 내용 찾기—묘사 방법 선택—묘사하기—고쳐쓰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을 파악해 보고 손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 선정에서부터 학습자의 역할로 제공하였다.

<신문 활용 묘사하기 예시>



<토론기록장 예시>



나. 신문 활용 토론(토의)

(관련 단위 : 3-1, 12. 환경파괴의 문제와 대책)

사회 현상과 흐름을 신문만큼 정선해서 잘 보여 주는 매체도 드물다. 그리고 대체로 신문 기사가 능숙한 솜씨로 다듬어진 문장이라는 것도 국어 학습 자료 매체로서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스스로 문장력과 구성력, 그리고 어휘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의 만남(또는, 햇볕 정책)이나 환경 보존에 대하여 토론하고 난 후 그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신문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이제는 만나야 한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 2학년 5반 강 봉 조

(줄임) 북한과 남한의 가족들이 연회장에서 만나 부둥켜안고 울고 웃었다. 5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가? 그들 중에서도 특히, 아버님을 만나려 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친지들만 만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보았다. 안타까웠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을 자신의 부모보다 더 높이 여겼다. 제사하기 전에는 김정일이 나온 사진을 세워 놓고 절을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이 때까지 살아 온 것은 우리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덕분…….” 이라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되어도 무조건 김정일을 통치자로 내세울 것이고,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한 이산 가족의 상봉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다. 그 이유는 가족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50년의 한을 풀어낸다는 것이 어찌 좋지 않으랴! 50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모 자식이 정겹게 정담을 나누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고 흐뭇하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도 못하고 지내왔던 가슴에 남은 한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좀 못마땅한 점이 있다. 가족 상봉을 하면서도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이란 말을 되풀이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까지 그만한 언어의 자유가 없다니……. 그것 하나만이라도 허용을 했으면 한다. 50년 세월의 한을 풀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타까운 일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이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해 신으로서 숭배하고 언어적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만큼은 진실한 인간으로 가슴에 벽을 허물고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줄임)

IV. ICT를 활용한 수업

1. 향토 유적지 소개하기

(관련 단원 : 2-1, 1. 말하기의 준비. 9.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

인터넷상에서 우리 고장의 유적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발표에 용이하도록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든다.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보충 자료를 문헌에

서 구한 다음 내용을 선별하여 구상해 본다. 실제로 화면 구성해 보고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다.

학생들의 수행이 용이하도록 예제 학습을 거친다. '목적 구체화하기-청중 분석하기-자료 모으기-구성하기-보조 자료 만들기-검토 및 말하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한 수업

교수-학습에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들과 형성평가 문항들이 올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예습 및 복습 활동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제작된 자료 이외에도 '국어 사랑', '제주도교육청 개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정선해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상 및 독서 감상문 메뉴에 학생과 교사의 글과 서평 등을 올려서 함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웹 자료 활용 글짓기 수업

(관련 단원 : 생활국어 1-1, 5. 내용 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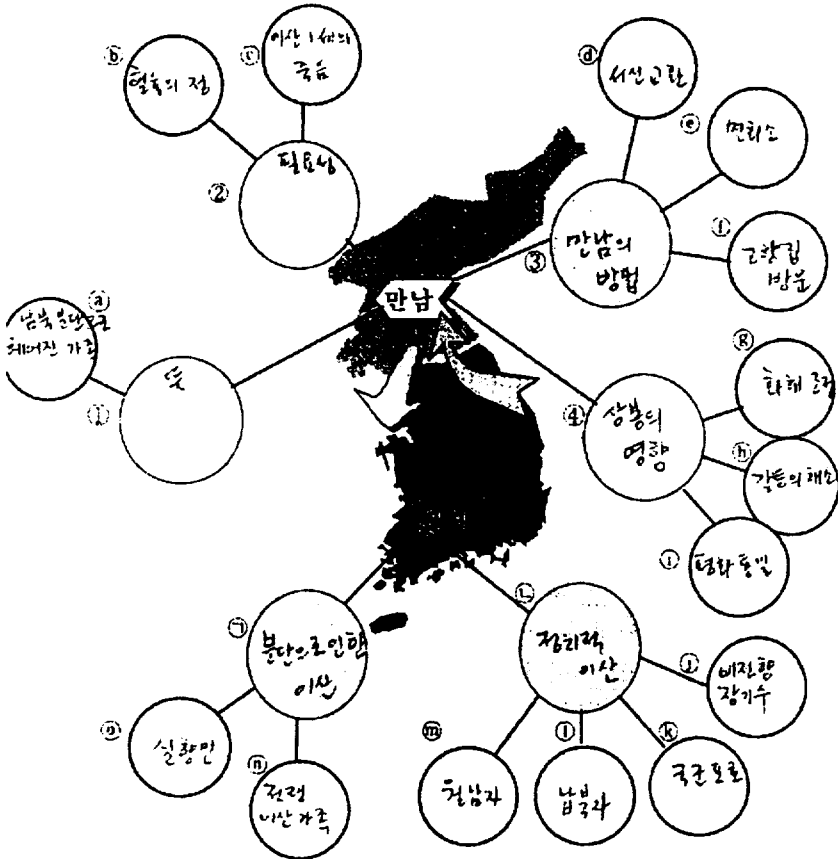
웹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재구성하는 활동을 학습자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인터넷의 건전한 활용과 아울러 소재를 풍부하게 얻고 고르는 데 도움이 됐다. 학생들이 자료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쓰도록 하고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밝혀 쓰도록 주지시켰다.

먼저 생각 구성표를 통하여 내용을 체계화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웹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하게 했다.

<자료5-7>

단원	5. 내용 선정하기	관련	생활 국어1-1 p110
학습목표	내용 선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수준	보충

◎ '남북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끌어 내 봅시다.



도우미가 위의 빈 동그라미를 다음 말로 채워서 생각을 더해 봅시다. ⑥분단으로 인한 이산 ⑤정치적 이산 ①뜻 ②필요성 ③만남의 방법 ④영광

V. 모방하기, 각색하기, 연출하기

1. 모방시 쓰기

(관련 단원 : 중학국어 1-1, 시의 운율)

모방시를 써 보는 것은 시의 운율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 표현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먼저 모범 시를 탐색한 다음, 그 모양에 실어 낼 자신의 서정적 체험을 생각해 낸다. 시의 문장이 형식에 맞지 않으면 어절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시어를 변형하거나 다른 단어로 말바꿈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 쓰이는 운율을 찾고 적용해 보게 되고, 시에서 쓰이는 심상과 이와 관련된 표현 기교를 손쉽게 활용해 봄으로써 학생과 시와의 거리를 좁혀 친근감을 더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고가 완성이 되면 다른 학생과 바꾸어 보거나 남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의미·정서적 흐름이 비약이나 단절이 없이 통일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고쳐 쓰기를 한다.

<모방시 쓰기 사례>

조선을 지키는 의병들의 이야기

양정훈(2학년)

매일 나라 생각하며 힘든 인생을 야는가?	조국이 그리워 하늘을 바라보지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돌아오면	주위를 둘러보면 붉은 비만이 어리고
혼자 남은 나의 인생이 고달파지는데	나의 자유는 없겠는가.
나의 자유는 없겠는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
언제부턴가 들려오는 절규와 피빛소리	나도 한번 지르고 싶소, '와'하면서
낯선 소리와 뼈를 찌르는 비명 소리에	우리들 힘모아 살기 위한 몸부림
언제나 시름시름 앓고 있던 나.	더 이상 피눈물은 싫다. 나의 마음은 날
나의 자유는 없겠는가.	고 싶다.

2. 작품 각색하기

가. 소설을 만화(그림)로 표현

(관련 단원 : 중학국어 1-1 요람기, 소나기)

영상·미디어 시대의 학생들은 문자로 쓰여진 단순한 텍스트에 싫증을 느끼

는 경우가 많다. 수업 시간에 공책이나 종이 여백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문자로 쓰여진 작품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의 흥미와도 부합한다.

소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문자로 쓰여진 작품 중의 사건이나 분위기, 인물의 심정 변화를 학습자가 스스로 상상하고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 속의 이야기나 인물을 생동감 있게 감상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흥미롭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 체험이 반영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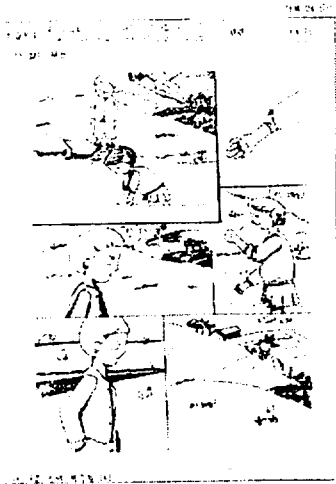
나. 희곡을 소설(동화)로 각색하기

(관련 단원 : 중학교어1-1. 빌헬름 텔)

희곡을 소설로 각색하는 활동은 희곡과 소설 장르의 형식상의 특징과 기법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먼저 희곡과 소설이 같은 서사적 요소와 인물과 갈등을 통해서 삶을 그려낸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희곡은 대화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설은 서사와 묘사, 대화 등으로 쓰여진다는 차이점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문장력과 재구성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희곡과 소설은 무대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독자와 작품을 통한 만남이라는 전달의 상황에 따라 어떤 요소들이 강화되었으며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희곡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소설로의 각색이 어렵기 때문에 작품 각색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작품 감상의 계기가 된다.

희곡을 소설로 각색하기, 희곡을 애니메이션 동화로 각색하기 등의 과정 활동을 통해 공동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환타지 소설로 각색하기도 했다.



'소나기'를 만화로 구성한 예



희곡을 애니메이션 동화로 각색한 예

3. 희곡 연출하기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작가가 상상해 낸 이야기를 대사와 지시문으로 표현한 연극의 대본이다. 상상력을 기초로 하는 교육은, 극작품을 쓰고 실제로 연기를 하고 여러 가지 즉흥극들을 연출해 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도, '희곡이 연극의 대본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살리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연극으로 상연하고 이를 감상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연극은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며, 작품 이해력과 언어 및 행동 표현 능력 등을 신장시킨다. 연극은 삶의 갈등을 종합적 예술 양식으로 표현하므로 자신의 삶을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자아 탐색 능력과 자신감을 아울러 기를 수 있었다.

홍부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연출하는 과정에서 배역을 맡았거나 소품을 준비했거나 관객이거나 학생 모두가 우리 고전을 현대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작품 선정 및 각색 과정은 학생들의 공동 작업이다. 교과서의 희곡 단원에 제한하지 않고 학생들의 당면 과제—학생들의 고민과 방향을 그린 '아프락사스의 새'를 연출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후에 이 작품은 청소년 예술제에 올려졌다. '빌헬름 텔', '들판에서' 등의 희곡도 연기 과정을 거쳤는데, 교실이라는 제

한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웠다.



<‘아프락사스의 새’ 공연 장면>

VI. 맺음말

학생들 스스로가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낀다. 물론 모든 학생이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독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책을 찾는 걸음이 익숙해지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도 독서의 유익함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책을 갖추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집단적인 독서 프로그램과 개별적이고 각 수준 및 취향에 맞는 지도 방법을 투입한 결과 좋은 성과들이 나타났고, 또 이와 같은 보람들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을 쓰는 수련을 위해서 독서는 좋은 방법이 된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글과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고쳐가야 할 곳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력은 자연스럽게 문장력과 직결된다 하겠다.

국어과 학습에 있어서도 독서 지도와 토론 활동을 겸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취약한 학습 능력을 보완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생활을 기르며 부족한 문화적 토양을 보충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건전하고 고운 심성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중매체의 시대가 되었고 학생들은 영상 세대라 불릴 만큼 영상과

음에 길들여져 있다. 이런 학습자의 여건에 부응하여 학습의 자료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ICT를 수용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실속 있게 채기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과 신문, 서적 등을 이용하여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재창조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학습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일(1980), 「독서교육론」, 일조각.
- 김일렬(1972), '홍길동전의 통일성과 불통일성', 「어문학 제27호」, 한국어문화회.
- 김효정(1970), "독서지도에 대한 일방안",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창립10주년 기념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 새교실 편집부(1982), 「독서교육」, 새한신문사.
- 안성수(1999), "21세기 문화대국을 꿈꾸며", 「읽으면 행복합니다」, 제주도교육청.
- 정동화외(1991), 「국어교육론」, 선일출판사.
- 조동일(1971),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끌계', 계명논총 제7집, 계명대학.
- 제주도교육연구원(1997), '중학교 국어과영역별학습자료', 삼화인쇄사.
- 제주도교육청(1999),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 시민당인쇄사.
- 최형규(1994), 「즐거운 토론교실」, 내일을 여는 책.
- 이원희(1999), '효율적인 독서지도방안',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교사 밤샘워크숍」, 탐라교육원.